

성경을 활용한 북한이탈주민의 한글 맞춤법 교육 효과 - 두음법칙을 중심으로 -

이안용*

1. 서론

2024년 7월 14일,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면서 안정적인 정착, 역량 강화, 화합을 통한 당당한 대한민국 구성원이 되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정착 과정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며, 또한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을 겪고 있으며, 이질적인 사회와 문화에 심리적, 정신적 불안정성을 호소하고 있다.¹⁾ 또한 남북한의 이질성을 느끼는 분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전문가의 98%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라고 평가한다. 이들은 학교나 직장에서 언어 문제와 결부된 사회적인 차별을 경험하며 40.7%가 말씨로 인해 차별,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 실질적인 소통에서 발음, 억양, 어휘의 차이는 물론 어문규범의 차이와 말투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²⁾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립국어원과 하나센터, 그리고 지역 유관 기관이 연계하여 전문적인 강사를 중심으로 발음과 억양 중심의 교육이 운영되고 있다.³⁾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언어 적응 교육

* 인하대학교에서 한국어교육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인하대학교 한국어교육학 강사. anyong@inha.ac.kr. 본고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4, 5장을 중심으로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임.

1) 임순희, 성민주, 이승엽, 『2023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23), 3-5.

2) 박종선 외, 『2016년 남북 언어의식조사 보고서』 (서울: 국립국어원, 2016), 120-130.

3) 조위수 외, “북한이탈주민 대상 언어적응 콘텐츠 개발 사례 연구”, 「다문화사회와 교육연

기관은 여전히 부족한 실태이며, 언어 적응 교육이 시행된다 할지라도 실제 수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⁴⁾ 교육 내용에서도 발음과 억양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그 외에 예절교육과 어문 규범 교육의 보충 또는 강화가 필요하다. 우인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언어 교육 교재와 TV 방송에 출연하는 이들의 대화를 분석한 결과 남북한 언어 차이에 대한 어문규범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남북한의 어휘에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으로는 두음법칙, 외래어, 한자어 등이 있다.⁵⁾

이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언어 교육을 위해 한글 맞춤법 항목들을 선정하고 재배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맞춤법에는 많은 세부 항목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그 안에는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 이에 단순한 암기보다는 원리의 차이를 이해하고 학습할 때 효과적이다.⁶⁾ 『한글 맞춤법』⁷⁾에서는 제1장에서 제시한 ‘소리대로’와 ‘어법에 맞도록’의 두 가지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맞춤법에서는 총칙에서 제시한 ‘형태주의적 원칙’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의 다른 원리들로 학습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이에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바탕으로 재배열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한글 맞춤법』과 『조선말 규범집』⁸⁾의 세부 항목들을 세분하여 대조 분석하고 규정적 차이를 나타낸 항목과 어휘적 차이의 항목들을 나누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⁹⁾ 다음으로 문법의 난이도와 학습자의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국어 문법 요소를 선정하고 위계적으로 구성할 때 효과적일 수 있다.¹⁰⁾ 그러나 남북한 맞춤법 원리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제언하는 실증적인 연구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

구』 4 (2019), 180-183.

- 4) 조연주,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착 목적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 연구: 지역적응센터 초기집 중교육 연계 방안”, 『현대북한연구』 21 (2018), 108.
- 5) 우인혜, “북한이탈주민 교재 보완을 위한 남북한 언어 비교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49 (2018), 129.
- 6) 구본관, “맞춤법 교육 내용 연구: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27 (2008), 206-208.
- 7) 대한민국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글 맞춤법』 (2017).
-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 『조선말 규범집』 (2010).
- 9) 임현열, “<조선말 규범집>과 <한글 맞춤법>의 규정 대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식 철자법’ 교육을 위하여”, 『다문화콘텐츠연구』 36 (2021), 363-372.
- 10) S. Deng,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수량 표현 교육 위계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21), 35; 모홍월, “중국인 학습자를 통해서 본 문화교육의 위계화 방안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 (2020), 147-152.

이상의 선행연구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어 교육의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핵심 내용에 어휘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에게 낮 설거나 난이도가 높은 두음법칙 규정의 예시어를 친숙하고 쉬운 교육용 어휘를 선정함으로써 보완할 필요가 있다.¹¹⁾

둘째, 교육 내용은 남북한 맞춤법의 원리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스스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세부항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¹²⁾ 이에 남북한어 성경을 대조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원리를 발견하고 탐구하며 창의력을 개발하는 두음법칙 교육 활동이 학습자의 어휘력 신장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¹³⁾

셋째, 북한이탈주민은 사회 적응과정에서 관계의 욕구에 의해 적응하고 있으며, 이에 종교, 사회단체 소속을 제언한 바 있다.¹⁴⁾ 이에 본고는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교회에 방문교육 형태로 남북한어 성경을 활용한 두음법칙 교육 방안을 설계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어휘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남북한의 한글 맞춤법 원리

남한의 『한글 맞춤법』 제1장 제1항에서 말을 글로 적는 두 가지 원리는 크게 ‘소리대로’와 ‘어법에 맞도록’ 이 두 가지이다. 그러나 북한의 『조선말 규범집』(2010)의 총칙에는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게 적는 것”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 그리고 “관습에 따라 허용하는 것”의 세 가지 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남한의 “소리대로 적는다”는 북한의 “소리 나는

11) 박덕유, “국어 어문 규정의 두음 법칙 위계화 연구”, 『새국어교육』 88 (2011), 371-372; 신명선 외, 『새터민 어휘 학습 교재 집필 지침서』 (서울: 국립국어원, 2010), 12-17.

12) 구본관, 신명선, “문법 지식의 총위와 성격·원리 중심 문법 교육의 설계를 위한 토대”, 『국어교육연구』 76 (2021), 118; 구본관, 신명선, “원리 중심의 문법 교육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27 (2011), 270-271.

13) 박덕유, 이안용,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성경 한자어 교육 연구-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45 (2019), 195-196.

14) 박이석,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과학연구』 25 (2015), 15-17; 김혜윤, 한정범, 조연주,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 교육과정 기초 설계를 위한 멜파이 조사 연구”, 『새국어교육』 118 (2019), 184-186.

대로 적는다”와 같으며, 남한의 “어법에 맞게” 적도록 하는 규정을 북한에서는 “단어의 뜻을 가진 부분을 언제나 같은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남한『한글 맞춤법』(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북한『조선말 규범집』(2010 총칙): 조선말 맞춤법은 단어에서 뜻을 가지는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은 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적거나 관습을 따르는 것을 허용한다.

이러한 남북한의 총칙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음주의 표기법과 ‘단어의 형태를 밝혀 적는’ 형태주의 표기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단어의 뜻을 가진 매개 부분을 언제나 같은 원칙” 형태주의 표기법을 원칙으로 정하면서 한글 맞춤법의 ‘소리대로’와 ‘어법에 맞도록’의 두 가지 원리가 북한의 ‘원칙대로’의 원리와 서로 대립적인 차이를 보이는 측면과 일치하는 측면이 나타난다. 구현정 외의 『국어문화학교 특별 과정 개발—새터민을 위한 국어 교육 과정—』에서는 남북한 어문 규범의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들로 ‘총칙, 자모의 이름, 모음, 두음법칙, 사이시옷, ㅂ, ㅎ 덧나는 소리, 의문형 어미, 부사형 어미, 띄어쓰기, 표준어와 문화어, 외래어와 로마자 표기법’으로 조사되었다.¹⁵⁾ 또한 임현열은 『한글 맞춤법』과 『조선말 규범집』(2010)의 규정을 최소 규정 단위로 나누어 총 106개 세부 항목을 대조 분석하였다.¹⁶⁾ 그 결과 남북한의 규정이 동일한 경우는 64개 항목, 규정은 유사하지만 예시가 다른 경우 14개 항목, 다소 다른 항목은 5개 항목, 남북한의 규정이 판이하게 다른 경우는 5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에만 있고 남한에는 없는 항목은 18개 항이며 북한에는 없고 남한에만 있는 항목은 13개 항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규정적 차이가 나는 항목은 두음법칙과 사이시옷, 어휘적 차이가 나는 항목은 ‘ㅂ’, ‘ㅅ’ 소리 덧나기, 우연한 공백으로는 구개음화 등 13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 중 두음법칙 항목의 경우,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¹⁷⁾에는 남북한어 모두 단어 표기에 두음법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북한의 경우 『조선어 신철자법』(1948)¹⁸⁾이 후부터 지금까지 적용하지 않고 있다.

15) 구현정 외, 『국어문화학교 특별 과정 개발—새터민을 위한 국어 교육 과정—』(서울: 국립국어원, 2008), 147.

16) 임현열, “<조선말 규범집>과 <한글 맞춤법>의 규정 대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식 철자법’ 교육을 위하여”, 358-378.

17) 조선어학회,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

18) 조선어문연구회, 『조선어 신철자법』(1948).

2.2. 원리 중심의 문법 교육

『한글 맞춤법』에는 수많은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에는 주시경이 논의한 ‘본음(本音)’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복잡한 세부 규정들을 무조건 암기하는 것보다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표기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지향할 필요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문법’이란 ‘말의 구성 및 운용상의 규칙’,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한다. 또한 ‘원리’란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 ‘행위의 규범’으로 인간이 의사소통의 활동을 할 때 언어가 작동하는 근본적인 원리를 문법으로 정의한다.¹⁹⁾ 이러한 정의를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해 본다면 문법의 원리가 이들의 언어생활에 적용 가능해야 하며 학습능력이나 수준, 그리고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원리도 지식의 일종으로 탐구 학습이 도입될 수 있다. 또한 원리는 규칙을 이해하기 위한 정검다리로서, 탐구 학습의 도구로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학습자에게 원리를 제공할 경우 학생들이 그 원리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규칙들을 보다 쉽게 탐구할 수 있다. 원리 중심의 문법 교육의 예시로 제3장 제11항의 일부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 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양심(良心)	량심	용궁(龍宮)	룡궁
역사(歷史)	력사	유행(流行)	류행
예의(禮儀)	례의	이발(理髮)	리발

[붙임1]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

개량(改良)	선량(善良)	수력(水力)	협력(協力)
사례(射禮)	흔례(婚禮)	와룡(臥龍)	쌍룡(雙龍)
하류(下流)	급류(急流)	도리(道理)	진리(眞理)

두음법칙 ‘제11항’에 따라 남한어의 표준말에서는 ‘ㅑ, ㅕ, ㅛ, ㅕ, ㅣ’ 앞에 ‘ㄹ’이 올 수 없다. 이에 ‘량심’의 ‘ㄹ’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수 없다. 이

19) 구본관, 신명선, “원리 중심의 문법 교육에 대한 연구”, 270-271.

에 ‘良心’의 표기와 발음은 ‘량심’이지만, ‘어법에 맞도록’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양심’으로 표기하며 발음 역시 ‘o’으로 바뀌게 된다. 하지만 북한어의 경우 『조선말 규범집』(2010) ‘제25항’에서 “한자말은 소리마다마다 해당 한자음대로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발음 역시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한다. 이에 따르면 ‘良心’의 ‘좋을 량’을 한자음 그대로 표기한다면 ‘량심’으로 적는 것이 원칙이며 한국어와 달리 ‘ㄹ’ 발음이 된다.

한편, ‘제10항 불임1’과 ‘제11항 불임1’의 경우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는다.’의 원칙은 ‘소리대로’가 잘 드러난 항목이다. ‘남녀(男女)’의 ‘녀’는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므로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본래 형태의 ‘녀’로 남아 실제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게 적는다. 이는 북한어의 ‘한자말은 한자음대로 적는다’는 원칙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이 항목은 북한이탈주민의 말과 일치한다. 이러한 두 가지 원리가 대립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측면이 있고 동일하게 일치를 보이는 측면도 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차이와 같은 원리들을 중심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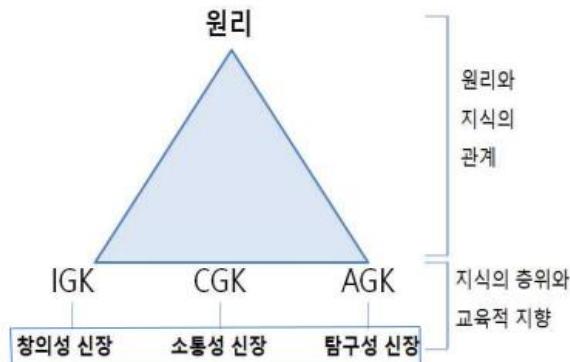
지식의 진화 과정에서 지식의 획득, 저장, 산출, 그리고 평가에 메타 지식이 개입하면서 지식활동의 모든 순간을 모니터링하며 이런 순환과 진화 과정의 반복에 의해서 축적된다.²⁰⁾ 개인과 조직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끊임 없이 변화하며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 축적된 지식인 암묵지(complied knowledge)와 새로 알게 된 명시지(articulated knowledge)를 결합하여 새로운 지식의 개념을 생성하고 이를 모델링화(modelling knowledge)하는데 이렇게 형성된 새로운 지식은 암묵지화 된다. 개인이나 조직이 가지고 있는 관점의 형태로 이들 사이에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한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관점 내에 존재하는 지식과 상충하여 새로운 모형의 지식을 만들어간다. 이러한 지식의 층위를 개인적 문법 지식(Individual Grammatical Knowledge), 일반적 문법 지식(Common Grammatical Knowledge), 추상적 문법 지식(Abstract Grammatical Knowledge)으로 나누어 세 층위의 문법 지식들을 중심으로 문법 교육의 구도를 설계하고 교육 방향을 구체화한다.²¹⁾ 개인적 문법 지식(IGK)은 교육의 시작점이며, 일반적인 문법 지식(CGK)이 개인적 문법 지식(IGK)과 추상적 문법 지식(AGK)의 매개체가 되어 개인적 문법 지식(IGK) 성찰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추상적 문법 지식(AGK)은 언어 공동체의 논리적 실체로 지향하면서 탐구와 성찰의 과정을 거쳐 다시

20) 김홍기, “지식경영에 있어서 지식의 표현과 메타지식의 역할”, 「산업공학」 13 (2000), 10-16.

21) 구본관, 신명선, “문법 지식의 층위와 성격-원리 중심 문법 교육의 설계를 위한 토대”, 117-125.

개인적 문법 지식(IGK)으로 도착하는 원리 중심 문법 교육 구도를 명료화하고 있다. 이에 구본관, 신명선이 개발한 원리 중심의 문법 교육 구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²²⁾

<그림 1> 원리 중심 문법 교육의 구도



교육의 시작이 학습자 개인적 문법 지식(IGK)으로 출발하지만 이는 비명시적이며 개별적이기 때문에 교육의 실행이 어렵다. 이에 명시적으로 학습한 일반적 문법 지식(CGK)이 기준점이 되어 학습자가 이를 탐구하고 성찰함으로써 지식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는 언어 공동체의 내재하고 있는 공통의 언어 운용, 구성 원리인 추상적 문법 지식(AGK)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일반성과 객관성을 지닌 일반적 문법 지식(CGK)을 참조하여 학습자의 문법 지식의 한계와 오류를 파악하고 추상적 문법 지식(AGK)을 탐구하여 다시 개인적 문법 지식(IGK)으로 회귀하는 과정을 통해 문법 지식을 보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의 변환과 순환 과정이 학습자의 창의성, 소통성, 탐구성 증진을 유도할 수 있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남북한어의 맞춤법에 나타난 원리들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자.

2.3. 남북한 맞춤법의 위계적 구성

남북한의 맞춤법 항목들을 비교하면 남한에는 없고 북한에만 존재하는 항목과 반대로 구개음화, 사이시옷, 두음법칙 등과 같이 남한에는 있지만

22) 구본관, 신명선, “문법 지식의 충위와 성격-원리 중심 문법 교육의 설계를 위한 토대”, 118.

북한에는 없는 항목들이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은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분야 중 어떤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신명선 외는 북한이탈주민 대상은 국어교육용 교재와는 다르다고 논의하며,²³⁾ 임현열은 남북한의 맞춤법 항목들은 규정적, 어휘적 차이가 크기에 교육을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재배열이 필요하다고 한다.²⁴⁾ 또한 이안용은 북한이탈주민 대상 연구 동향에서 국어교육보다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²⁵⁾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어와 북한어의 대조 분석 가설을 바탕으로 교육용 항목을 선정하고 재배열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외국어 교육에서 목표어와 모국어의 차이가 클수록 학습자의 어려움은 커지며 이에 문법의 난이도에 대한 위계적 구성의 교육내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두 언어의 규칙에 대한 대조 분석 가설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라도(R. Lado), 베너시(B. H. Banathy), 트레이거(B. C. Trager), 워들(C. D. Waddle), 클리퍼드 프레이터(C. Prator) 등이 있다.²⁶⁾ 프레이터는 음운과 문법의 난이도 위계를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로 총 6단계로 제시한다.²⁷⁾ 남북한 맞춤법의 항목을 0단계부터 5단계까지 6단계의 난이도 위계에 적용하여 구성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남북한 맞춤법의 난이도 위계

단계	구분	내용
0단계	전이 (transfer)	북한어와 남한어의 음운규칙 간의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1단계	융합 (coalescence)	북한어 음운규칙 중 두 항목의 규칙이 남한어에서 한 항목의 규칙으로 합쳐지는 경우
2단계	구별부족	북한어에 있는 규칙인데 남한어 규칙에는

23) 신명선 외, 『새터민 어휘 학습 교재 집필 지침서』, 1.

24) 임현열, “<조선말 규범집>과 <한글 맞춤법>의 규정 대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식 철자법’ 교육을 위하여”, 372.

25) 이안용,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 연구 동향 분석”, 「외국어교육」 27 (2020), 232.

26) R. Lado, *Linguistics across Cultur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7), 51-74; B. H. Banathy, B. C. Trager, and C. D. Waddle, “The Use of Contrastive Data in Foreign Language Course Development”, A. Valdman, ed., *Trends in Language Teaching*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66), 35-56; C. Prator, *Hierarchy of Difficulty*, Unpublished Classroom Lec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967), 42-63.27) C. Prator, *Hierarchy of Difficulty*, 42-63; X. Jin, “한국어 교육용 음운규칙 내용 선정 및 위계화 연구: 중국 대학 한국어전공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9), 18-20에서 재인용.

단계	구분	내용
	(under differentiation)	없는 경우
3단계	재해석 (reinterpretation)	북한어에 존재하는 항목이 남한어에서는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4단계	과잉구별 (over differentiation)	북한어에는 없거나 유사점이 없는 규칙이 남한어에는 있는 경우
5단계	분리 (split)	북한어에서는 하나이던 규칙이 남한어에서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으로 분리되는 경우

이 중에서 0단계와 1단계는 남북한의 규정이 거의 일치하며, 규정이 같지만 예시만 다른 경우이다. 또한 2단계의 경우, 남한어에는 없고 북한어에만 있는 규정이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한글 맞춤법』내용은 3단계부터 5단계의 항목들을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3단계의 세부 항목으로는 홀자음의 명칭(제4항 본1), 쌍자음의 명칭(제4항 붙임1), 자모의 제시 순서(제4항 붙임2), 모음 ‘니’의 한자어와 고유어의 차이(제9항 본) 등이 있다. 4단계의 세부 항목은 구개음화(제6항), 사이시옷(제30항), 겹쳐나는 소리(제13항 뒤), 연결형의 ‘-이요’, 덧붙이는 조사 ‘요’(제17항), ‘말다’의 활용(제18항 붙임1), ‘ㅂ’ 불규칙 동사 활용(제18항 6 다만), ‘ㅂ’ 소리 덧나는 것(제31항 1), ‘ㅎ’ 소리 덧나는 것(제31항 2), 의문형 어미의 된소리(제53항 다만), 접미사의 된소리(제54항) 그리고 어휘의 차이(제55항~57항) 등이 남한어에는 있으나 북한어에는 없는 항목이다. 마지막 5단계 분리(split)는 북한어에서는 하나이던 규칙이 남한어에서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으로 분리되는 경우로 가장 높은 난이도에 해당하는 항목은 두 음법칙으로 나타났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인천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 10명, 대조집단 10명으로 구성하였다. 실험집단은 2021년 9월 26일부터 10월 24일까지 주 2회, 90분씩 총 9회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대조집단은 2021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주 3회, 90분씩 총 9회기의 수

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 면담 내용은 녹음 및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교육 장소는 북한이탈주민 출신 교회에서 주일 예배 후에 진행하였으며, 언어적응 교육의 경험이 없는 주부집단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현황

		실험집단		대조집단	
내용	분류	빈도	%	빈도	%
성별	여자	9	90%	9	90%
	남자	1	10%	1	10%
재북 출신 지역	함경북도	7	70%	6	60%
	양강도	1	10%	2	20%
	평양	0	0	1	10%
	강원도	2	20%	1	10%
종교	기독교	9	90%	9	90%
	무교	1	10%	1	10%
합계		10	100.0%	10	100.0%
연령		$M=42$, $S.D=12.9$, $min=20$, $max=60$		$M=39$, $S.D=12.9$, $min=20$, $max=50$	
거주기간		$M=76.7$, $S.D=52.2$, $min=7$, $max=168$		$M=83$, $S.D=42.5$, $min=24$, $max=159$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 90%를 차지하였으며, 출신지역은 함경북도가 가장 많았다. 종교는 기독교가 18명이며 무교가 2명으로 종교와 관계 없이 북한이탈주민 출신으로서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집단의 평균 연령은 42세($S.D=12.9$), 대조집단은 평균 39세($S.D=12.9$)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의 남한 거주기간은 7개월에서 최대 169개월(14년)까지로 평균 기간은 76.7 개월($S.D=52.2$)로 나타났다. 대조집단은 최소 24개월에서 최대 159개월이며 평균 83개월($S.D=42.5$) 거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2. 두음법칙 교수·학습 방안 구성

3.2.1. 두음법칙 교육내용 구성

두음법칙은 『한글 맞춤법』 제3장 소리에 관한 것-제5절에 관한 항목으로 ‘제10항(붙임1, 붙임2, 붙임3), 제11항(붙임1, 붙임1 다만, 붙임2, 붙임3, 붙임4, 붙임5), 제12항(붙임1, 붙임2)’이 있다. 반면 『조선말 규범집』(2010)의 발음에 관한 규정 ‘제5항’에서 “<ㄹ>은 모든 모음 앞에서 <ㄹ>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과 ‘제5항 [추가]’에서 “그러나 한자말에서 <렬, 르>은 편의상 모음 뒤에서는 [열]과 [율]로, <ㄹ>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는 [녈], [눌]로 발음한다.”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분렬, 규률’의 경우 우리의 ‘분열, 규율’과 표기의 차이를 보이지만 발음은 동일하다. 이와 같이 『한글 맞춤법』의 두음법칙 세부항목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나타내며, 본 고에서는 두음법칙의 세부항목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내용을 구성하였다.

먼저 어문규범에 제시된 어려운 예시어 외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교육 용 어휘를 북한어 문헌에서 추출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북한어로 사용되고 있는 『조선어 련대기 성경』(2008)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어휘를 중심으로 추출하였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출신 목회학 박사 1명과 북한이탈주민 출신 안보 교육 강사 4명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용 어휘 목록을 1차 선정하였으며, 국어교육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검증을 한 후 교수·학습용 어휘 목록을 선정하였다.

<표 3> 북한어 문헌의 두음법칙 관련 항목별 어휘

세부 항목	남한어	북한어
제10항	여동생, 여왕, 여인, 여자, 여종, 염려, 여사, 여성, 여선생	녀동생, 너왕, 너인, 너자, 너종, 넘려, 너사, 너성, 너선생
제10항 [붙임1]	금년, 기념, 남녀, 소녀, 자녀, 손녀, 처녀, 청년, 하녀	금년, 기념, 남녀, 소녀, 자녀, 손녀, 처녀, 청년, 하녀
제10항 [붙임2]	근로여성, 가두여성	근로녀성, 가두녀성
제11항	양식, 영주, 영혼, 영, 예물, 예배, 육로, 육지, 율법, 율법학자, 이유, 이자, 이호, 양강도, 연상, 연인, 약탈, 양쪽, 여관, 여행, 연못, 영리, 예년, 예복, 예식, 유하다, 유황, 이익	량식, 령주, 령흔, 령, 례물, 례배, 륙로, 륙지, 륙법, 륙법학자, 리유, 리자, 리호, 랑강도, 련상, 련인, 랙탈, 랑쪽, 렘관, 렘행, 렘못, 령리, 례년, 례복, 례식, 류하다, 류황, 리익

세부 항목	남한어	북한어
	예의범절, 예년, 유학생, 유형	례의범절,례년,류학생,류형
제11항 [붙임1]	관례, 동료, 세리, 십리, 협리, 장례, 차례, 향료, 도리, 명령, 무례, 법률, 성령, 전례, 행렬, 호령, 경련, 궁리, 권력, 규례, 분량, 신랑, 치료, 할례, 경례, 능력, 선량, 세례, 시련, 음료, 진리	관례, 동료, 세리, 십리, 협리, 장례, 차례, 향료, 도리, 명령, 무례, 법률, 성령, 전례, 행렬, 호령, 경련, 궁리, 권력, 규례, 분량, 신랑, 치료, 할례, 경례, 능력, 선량, 세례, 시련, 음료, 진리
제11항 [붙임1]-다만	분별, 규율	분별, 규률
제11항 [붙임4]	정결예식, 오색영통, 기술역량, 현대역사, 건설역사, 사상이론	정결례식, 오색령통, 기술력량, 현대력사, 건설력사, 사상리론
제12항	낙원, 낙타, 난리, 낭비, 내새, 논쟁, 누명, 내일, 냉수, 노고, 냉동창고, 노동신문	락원, 락타, 란리, 랑비, 래새, 론쟁, 루명, 래일, 랭수, 로고, 랭동창고, 로동신문
제12항 [붙임1]	거래, 기록, 내란, 반란, 본래, 소란, 원로, 희롱, 위로, 촌락, 쾌락, 포로, 향로, 허락	거래, 기록, 내란, 반란, 본래, 소란, 원로, 희롱, 위로, 촌락, 쾌락, 포로, 향로, 허락
제12항 [붙임2]	지상낙원, 여성노동자	지상락원,녀성로동자

선정된 어휘 목록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 31명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도구는 박덕유가 개발한 두음법칙 세부항목의 ‘이해도, 난이도, 예시의 사용빈도’의 세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²⁸⁾ 항목은 ‘제10항, 붙임1, 붙임2, 제11항, 붙임1, 붙임1-다만, 붙임4, 제12항, 붙임1, 붙임2’의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 수는 두음법칙 세부 항목의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어문규범 예시 10문항, 북한어 문헌에서 추출한 어휘 10문항으로 총 20문항과 예시의 난이도와 사용빈도는 각각 어문규범 50문항, 북한어 문헌의 어휘 50문항씩으로 총 200문항이다. 두음법칙 예시어의 적정성에 관한 질문에서 어휘의 난이도는 ‘매우 어렵다’부터 ‘매우 쉽다’까지 5점 척도, 사용빈도는 ‘사용하지 않는다’부터 ‘매우 자주 사용한다’까지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두음법칙 세부 항목의 이해도 조사는 객관식 질문 유형으로 실시하였다.

기초조사의 분석 결과, 첫째, 북한이탈주민은 『한글 맞춤법』에 제시된

28) 박덕유, “국어 어문 규정의 두음 법칙 위계화 연구”, 368-369.

규범의 예시어($M=3.38$)보다 북한어 성경에서 출현하는 어휘($M=3.96$)를 더 쉽게 인식하였다. T-test 분석 결과, $t=-5.019(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일상생활에서 어문규범에 제시된 예시어($M=2.63$)보다 북한어 성경에서 출현한 어휘($M=3.28$)를 더 자주 사용하였다. T-test 분석 결과, $t=-4.242(p<.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셋째, 세부항목의 규정을 이해하고 있는 평균 인원은 31명 중에서 15.8명 (51%)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남북한 규정에서 차이가 없는 항목은 제12항 붙임1(20명), 제11항 붙임1(19명), 제10항 붙임1(17.5명)으로 정답자 수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제10항(15명), 제11항(17명), 제12항(17명)이며, 그 외 항목들은 제11항 붙임4(15.5명), 제10항 붙임2(14명), 제12항 붙임2(13명), 제11항 붙임1 다만(10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법의 난이도와 남북한 맞춤법의 원리를 반영하여 두음법칙 세부항목의 위계를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원리 중심의 두음법칙 세부항목 위계 구성

순서	세부항목	맞춤법 원리
1단계	제10항 붙임1, 제11항 붙임1, 제12항 붙임1	소리대로
2단계	제10항, 제11항, 제12항	어법에 맞도록
3단계	제10항 붙임2, 제11항 붙임1 다만, 제11항 붙임4, 제12항 붙임2	어법에 맞도록

이에 남북한어의 차이가 없는 가장 쉬운 1단계는 ‘제10항 붙임1, 제11항 붙임1, 제12항 붙임1’ 항목으로 ‘소리대로’의 원리를 적용한다. 다음으로 남북한어의 두음법칙 규정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항목은 ‘제10항’, ‘제11항’, ‘제12항’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10항 붙임2, 제11항 붙임1 다만, 붙임4, 제12항 붙임2’에서는 ‘어법에 맞도록’의 원리를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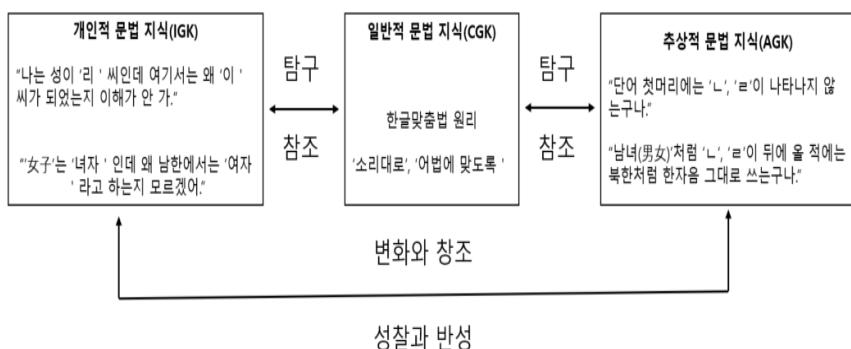
3.2.2. 두음법칙 교수·학습 방안

앞에서 제시한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두음법칙 세부항목의 이해도, 난이도, 사용빈도에 대한 단계별 항목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남북한 맞춤법이 대립적으로 차이를 보이면서 동시에 일치를 보이는 두 원리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내용을 구성하였다.

남북한 맞춤법의 원리를 발견하는 활동1(이형동의어, 동형동의어, 동형

이의어 찾기)과 활동2(역할극)를 통해서 학습자가 개인적 문법지식(IGK)에 직면하게 되며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육의 출발점이 된다. 예를 들어, “나는 고향에서 성이 ‘리’ 씨인데 남한에서는 왜 ‘이’ 씨가 되었는지 이해가 안 가.”와 같이 남북한 원리의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험한 개인적 문법 지식은 추상적인 단계이다. 이에 교수자는 두음법칙 제11항 규정과 표기, 발음에 관한 원리를 소통성을 증진하기 위한 측면에서 토의 할 수 있다. 이렇게 학습한 일반적 문법 지식(CGK)은 개인적 문법 지식(IGK)을 수정, 교정하면서 명시화하게 된다. 또한 활동3(어법에 맞게 표기하기), 활동4(소리대로 발음 연습하기), 활동5(북한어를 표준어로 변환하기)를 통해 “단어 첫머리에는 ‘ㄴ’, ‘ㄹ’이 나타나지 않는구나.”와 같이 추상적 문법 지식(AGK)의 문법 원리 차이를 탐색 및 참조하여 자신의 한국어 생활을 돌아보게 된다. 또한 의사소통 상황을 제시하고 연습함으로써 학습한 어휘 사용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 스스로의 변화와 창조, 탐색과 비판적 검토가 가능하다. 북한이탈주민의 두음법칙 지식 순환 예시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북한이탈주민의 두음법칙 지식의 순환



지금까지 기초조사 결과와 한글 맞춤법 원리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1단계 항목들은 남북한 어휘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교수 원리는 ‘소리대로’의 표기와 발음에 대해서 학습한다. 2단계와 3단계 항목들의 어휘 형태는 남북한의 원칙에서 차이를 나타내며 이에 ‘어법에 맞도록’에 해당하는 표기와 발음에 대해서 학습한다.

원리 발견 활동1은 남북한 어휘 대응을 통한 이형동의어 및 동형동의어의 어휘를 찾고, 활동2는 두음법칙 규정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 출판한 『공동개정』과 이를 북한의 문화어 맞춤법에 맞게 교정하여 평양에서 출간한 성경을 다시 출간한 『조선어 현대기 성경』(2008)의 대조 텍스트를 활용하였다. 다음은 『조선어 현대기 성경』 요한복음 4장의 텍스트 예시이다.

사마리아녀자: 당신은 유대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녀자인데 어떻게 저 더러 물을 달라하십니까?

예 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너희에게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샘물을 주었을 것이다.

사마리아녀자: 선생님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다 선생님께서는 드레박도 없으시면서 어디서 그 샘물을 떠다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사마리아녀자: 과연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조상은 저 산에서 하나님께 혜배드렸는데 선생님은 혜배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 수: 내 말을 믿으라. 사람들이 아버지께 혜배드릴 때에 이 산이다 또는 저 산이다 하고 구태여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이다, 진실하게 혜배하는 사람들이 령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혜배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 때이다.

활동1은 도입 부분으로 남북한어 성경의 대조 텍스트를 통해서 ‘녀자’, ‘녀인’, ‘념려’ 등의 두음법칙 제10항을 미적용한 어휘와 ‘혜배’, ‘령적’ 등의 제11항을 미적용한 어휘들을 학습자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드레박(두레박)’, ‘원쑤(원수)’, ‘안해(아내)’ 등과 같이 이형동의어 형태의 어휘들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으로 활동2의 성경 텍스트의 상황을 제시하고 두 사람이 짹을 이루어 북한어로 재현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남북한어 규정의 차이를 학습자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학습자가 교재에 제시된 문법 내용을 확인하고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두음법칙 세부항목에 대한 원리를 설명한다. 이를 통해 두음법칙 항목의 원리들을 단계별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활동3을 통해 ‘어법에 맞도록’ 표기 연습을 하고, 활동4의 ‘어법에 맞도록’ 발음하기 연습을 진행한다. 활동5에서는 의사소통 상황을 제시하고 역할극을 통해 북한어를 표준어로 바꿔서 대화하기 연습을 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학습된 어휘 사용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에서는 수업시간에 학습한 핵심 문법을

정리하고 다음 차시에 배울 어휘를 제시한다.

3.3. 측정 도구 구성

먼저 사전-사후 검증을 위해 두음법칙 세부항목 규정의 이해 10문항과 두음법칙 세부항목의 표기 10문항, 발음 10문항으로 총 30문항이며 개인적 배경은 4문항으로 총 3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사전-사후 검사로 총 2회 실시하였다. 두음법칙 항목별 이해도 평가는 객관식으로 구성되었으며 두음법칙 표기와 발음에 대한 평가는 팔호 넣기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두음법칙 세부항목의 ‘이해도, 표기, 발음’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채택하였다. 조사 방법으로 배준영은 ‘문장 읽기 조사, 팔호 넣기 조사, 선택지 조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²⁹⁾ 구현정 외에서는 ‘팔호 넣기, 선택지, 문장 읽기’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며,³⁰⁾ 이호영의 『새터민 대상 표준 발음 교실』에서는 ‘팔호 넣기, OX 넣기’의 방법을 사용하였다.³¹⁾ 이에 본고에서는 박덕유가 개발한 이해도, 난이도, 사용빈도의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세부항목은 ‘제10항, 제10항 불임1, 제10항 불임2, 제11항, 제11항 불임1, 제11항 불임1 다만, 제11항 불임4, 제12항, 제12항 불임1, 제12항 불임2’ 등이다.³²⁾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사를 위한 Cronbach's Alpha 값은 두음법칙 세부항목의 이해도, 표기의 요인들의 계수는 0.77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발음에 대한 값은 0.667로 나타나 신뢰도 분석 상세결과 내적합치도가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측정도구의 신뢰도 산출 결과

요인	문항 수	Cronbach's Alpha
이해도	10	.779
표기	10	.775
발음	10	.667

다음으로 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차시별 FGI를 실시하였다. FGI

29) 배준영, “대구지역 새터민의 언어적응 양상 연구: 음운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교, 2011), 22-23.

30) 구현정 외, 『국어문화학교 특별 과정 개발—새터민을 위한 국어 교육 과정』, 5-6.

31) 이호영, 『새터민이 배우는 표준 발음 교실』(서울: 국립국어원, 2009), 41-42.

32) 박덕유, “국어 어문 규정의 두음 법칙 위계화 연구”, 368-369.

분석의 목적은 통계 분석 결과와 더불어 실험 참여자들로부터 남북한어의 이질화와 언어 적응의 어려움에 관한 인식과 태도 변화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³³⁾

면담을 위한 질문지 내용은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남북한 두음법칙 규정의 차이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한국어 적응에 어려움을 미칠 것이다.³⁴⁾

둘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언어 적응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것이다.³⁵⁾

셋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언어 적응 교육이 지역 교회나 시민단체와 연계할 때 효과적일 것이다.³⁶⁾

넷째, 성경을 활용한 원리 중심의 두음법칙 교육이 효과적일 것이다.³⁷⁾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분석 방법은 질문에 대한 응답을 녹음 및 전사하여 텍스트 문서로 수집하였으며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응답자들의 주요 답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표 6> 차시별 FGI 질문지 내용 구성

연구 문제	차시	세부 내용
H1. 남북한 언어의 차이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한국어 적응에 어려움을 미칠 것이다.	1	남북한 언어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신 일이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그때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2	남북한 두음법칙 규정의 차이가 있는데 이로 인해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H2.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언어 적응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3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언어 적응 교육이 국립국어원이나 하나재단, 지역 유관 기관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33) T. L. Ghoris,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An introduction",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2007), 203-205; S. A. Lederman, and A. Paxton, "Maternal Reporting of Prepregnancy Weight and Birth Outcome: Consistency and Completeness Compared with the Clinical Record", *Maternal and Child Health Journal* 2:2 (1998), 123-126.

34) 박종선 외, 『2016년 남북 언어 의식조사 보고서』, 120-130; 박덕유, "국어 어문 규정의 두음 법칙 위계화 연구", 371-372.

35) 조연주,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착 목적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 연구: 지역적응센터 초기 집중교육 연계 방안", 108; 우인혜, "북한이탈주민 교재 보완을 위한 남북한 언어 비교 연구", 129.

36) 박이석,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15-17; 김혜윤, 한정범, 조연주,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 교육과정 기초 설계를 위한 멜파이 조사 연구", 184-186.

37) 구본관, 신명선, "문법 지식의 충우와 성격-원리 중심 문법 교육의 설계를 위한 토대", 131-132.

연구 문제	차시	세부 내용
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것이다.	4	언어 적응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되십니까?
	5	언어 적응 교육이 시행되고 있어도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H3.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언어 적응 교육이 지역 교회나 시민단체와 연계할 때 효과적일 것이다.	6	종교단체에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	언어 적응 교육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는 무엇입니까?
	8	매주 방문 수업 형태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4. 성경을 활용하여 남북한 맞춤법의 원리 중심으로 교육한다면 북한이탈주민의 한글 맞춤법 이해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8	성경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 동안 즐겁게 공부하셨습니까? 두음법칙 규정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9	다음에도 어문규범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배우고 싶은 어문규범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3.4. 실험 방법 및 절차

3.4.1. 실험 방법

실험집단은 성경을 활용한 원리 중심 교육 내용을 적용하였으며, 대조집단은 원리 중심의 두음법칙 교육을 실시한다. 두음법칙의 세부항목에 대한 이해도, 표기, 발음 능력에 대한 교육 이전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실험 대상자가 20명으로 통계적인 검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FGI를 통해 효과성을 검증한다. 면담 내용은 녹음 및 전사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언어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표 7> 실험 설계 모형

구분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O ₁	X ₁	O ₃
대조집단	O ₂	X ₂	O ₄

O₁, O₂: 사전검사/ O₃, O₄: 사후검사

X₁: 실험처치/ X₂: 일반처치

3.4.2. 분석 절차

한글 맞춤법 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 도구는 t-test 검증을 시행하였으며, 분석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집단과 대조집단 간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동질성을 확보한다.

둘째,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차이 검증을 실시한다.

셋째, 대조집단의 사전-사후 차이 검증을 실시한다.

넷째, 실험집단과 대조집단 간 사후 차이 검증을 실시한다.

다섯째, FGI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기법을 사용하여 참가자들의 면담 내용을 분석 한다.

4. 연구 결과

4.1. 사전집단의 동질성 검사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요인별 동질성 검증을 위해 문항별 10점 기준으로 총 30문항에 대한 t-tes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의 두음법칙 ‘이해도, 표기, 발음’에 대한 사전 평균 점수가 유의수준 $p>.05$ 로 측정됨으로써 집단 간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두음법칙 세부 규정에 대한 이해도는 4 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발음은 4.5점, 표기는 5.7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8> 사전집단의 동질성 검사

요인	Group	N	Mean	SD	df	t	p
이해도	실험집단	10	4.1	2.37	18	0.11	0.915
	대조집단	10	4	1.70			
표기	실험집단	10	5.8	2.09	18	0.08	0.931
	대조집단	10	5.7	2.94			
발음	실험집단	10	4.6	1.26	18	0.39	0.70
	대조집단	10	4.4	0.97			

* $p<.05$ ** $p<.01$

4.2. 두 집단의 사전-사후 검증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사전-사후의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먼

저 성경을 활용한 교육을 한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음법칙 세부항목에 대한 ‘이해도, 표기, 발음’ 모든 영역에서 유의수준 ($p<.001***$)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전점수 대비 사후점수에서 이해도 5.2 점, 표기 3.7점, 발음 4.3점이 향상되었으며 이를 통해 그 효과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체 점수는 표기가 9.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해도가 9.3점, 발음이 8.9점으로 나타났다.

<표 9>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검증

요인	시점	N	Mean	SD	MD	t	p
이해도	사전	10	4.1	2.37	-5.2	-6.5	0.0001***
	사후	10	9.3	1.05			
표기	사전	10	5.8	2.09	-3.7	-4.95	0.0007***
	사후	10	9.5	0.70			
발음	사전	10	4.6	1.26	-4.3	-6.6	0.0001***
	사후	10	8.9	1.19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원리 중심의 두음법칙 교육을 실시한 대조집단의 사전-사후 검증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전점수 대비 사후점수에서 세부항목 규정의 이해도가 3.9점 상승하여 가장 크게 향상되었으며, 표기는 3.2점, 발음은 3.0점이 향상되었다. 이를 통해 남북한어의 원리 차이를 통한 교육에서도 그 효과성이 유의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대조집단의 사전-사후 검증

요인	시점	N	Mean	SD	MD	t	p
이해도	사전	10	4.0	1.70	-3.9	-4.52	0.001***
	사후	10	7.9	1.60			
표기	사전	10	5.7	2.94	-3.2	-2.69	0.025*
	사후	10	8.9	1.65			
발음	사전	10	4.4	0.97	-3.0	-3.61	0.006**
	사후	10	7.4	2.0			

* $p<.05$ ** $p<.01$ *** $p<.001$

4.3. 사후집단 간 차이 검증

성경을 활용한 두음법칙 교육을 한 실험집단과 원리 중심 교육의 대조집단의 사후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해도는 실험집단에서 $t=2.31(p=.034^*)$ 로 유의수준 $p<.05$ 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표기와 발음에서는 유의수준 $p>.05$ 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두음법칙 교육이 두 집단 모두에서 ‘이해도, 표기, 발음’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성경을 활용한 두음법칙 교육을 실행한 실험집단이 전체 평균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문법에 대한 이해도에서 대조집단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11> 사후집단의 차이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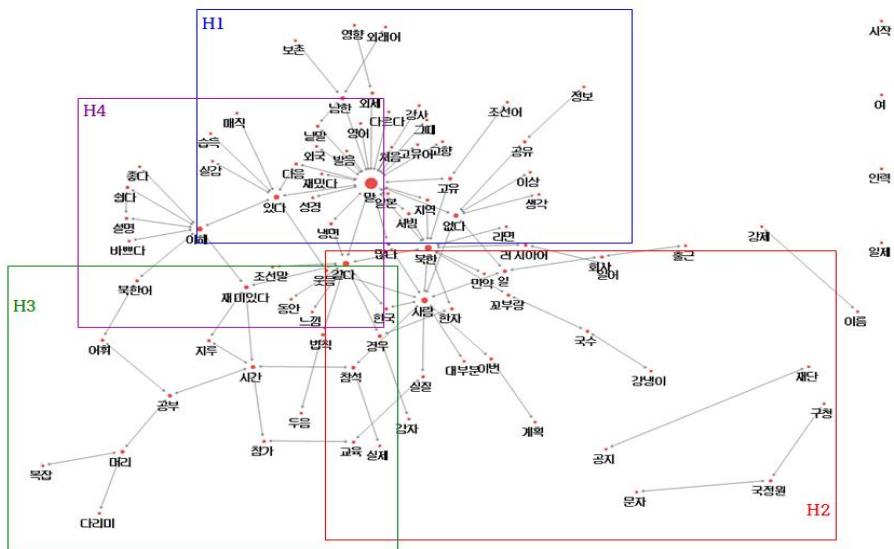
요인	Group	N	Mean	SD	df	t
이해도	실험집단	10	9.3	1.05	2.31	0.034*
	대조집단	10	7.9	1.60		
표기	실험집단	10	9.5	0.70	1.05	0.314
	대조집단	10	8.9	1.65		
발음	실험집단	10	8.9	1.19	2.02	0.060
	대조집단	10	7.4	2.0		

* $p<.05$ ** $p<.01$ *** $p<.001$

4.4. FGI 분석 결과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면담 내용을 녹음 및 전사하여 수집한 텍스트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핵심어들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빈도수 분석 결과,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명사 어휘는 ‘말’이며, 다음으로 ‘북한’, ‘사람’, ‘이해’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형용사는 ‘좋다’, ‘없다’, ‘같다’ 등의 형용사 어휘들이 상위에 출현하였으며, 다음으로 ‘재미있다’, ‘쉽다’, ‘많다’ 등의 어휘도 출현하였다.

<그림 3> FGI 중심성 분석 시각화



언어 네트워크 지도에서 가장 많은 어휘들과 연결(Link)을 맺고 있는 주요 핵심어를 분석하는 중심성 분석 결과, 명사 어휘는 ‘말’, ‘북한’, ‘사람’, ‘공부’, ‘고유어’, ‘북한어’ 등이 상위에 나타났으며, 형용사 어휘는 ‘재미있다’가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중심성을 나타내었다. 언어 네트워크의 시각화에서 ‘말’을 중심으로 먼저 파란색 그룹(H1)에서는 ‘고유어’, ‘외래어’, ‘조선어’, ‘낱말’, ‘발음’ 등의 어휘들과 연결되어 있다. 남한에서 적응하는데 언어적 어려움에 관한 어휘들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 붉은색 그룹(H2)에서는 ‘국정원’, ‘재단’, ‘공지’ 등으로 언어적용 교육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연결되어 있다. 초록색 그룹(H3)에서는 ‘교육’, ‘어휘’, ‘공부’, ‘두음법칙’ 등으로 교육의 효과에 관한 내용이다. 마지막 보라색 그룹(H4)에서는 ‘웃음’, ‘재미있다’, ‘성경’, ‘쉽다’ 등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파란색 그룹(H1)의 언어적인 문제와 함께 지도의 중심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성경을 활용한 두음법칙 교육의 효과는 어떠한지 면담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차시별 심층면접 질문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답변 내용을 종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H1. 남북한의 어문규범 차이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언어 적용을 하는 데 어려움을 미칠 것이다.

1) 남북한의 언어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신 일이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그때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인터뷰 분석 결과, 남북한 언어의 차이는 북한이탈주민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며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 역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와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인력소를 갔단 말이에요. 인력소에서 왔는데 나를 보고 갑자기 오늘 서빙하러 가라고 해요. 근데 서빙이라는 말을 몰랐어요. 영어말이잖아요. 북한에서는 서빙이라는 말이 없고 우리는 복무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빙이 뭐예요? 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어디서 왔냐고 해서 북한에서 왔다고 하니 그때는 가르쳐주더라. 근데 식당 가니까 진짜 처음에 말 때문에 … 그때는 진짜 같은 조선말을 하는데 왜 알아듣지 못할까?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거주기간이 길어도) 그래도 저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사투리가 하는데 한국말이라도 또 … 물론 말을 듣는다고 해도 있잖아요. 요새는 더군다나 애들이 또 다 반토막(줄임말) 말을 하잖아요. 더 모르는 게 더 있더라고요. 신조어가 생기니까 기뜩이나 어려운데…

2) 남북한 두음법칙 규정의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남북한의 규정 차이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성씨가 바뀌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각한 충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희가 제일 처음에 와서 이해가 안 된 게 나는 ‘립’ 씨인데 왜 ‘임’이가 되었나? 그거 가지고 많이 그랬는데 그게 두음법칙 때문에 그랬는데 차라리 북한처럼 생긴 대로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댔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같은 경우는 한자 그대로 적기 때문에 이상할 게 없는데 말입니다.

‘리’ 이거를 ‘이’로 바꿔놓으니까 왜 남의 성까지 바꿔놓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당황했어요. 일제 때 이름을 강제로 고치라고 하니까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말할 때는 ‘려’자인데 쓸 때는 ‘여’가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이해하기가 바쁘거든요.

H2.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언어 적응 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것이다.

1) 국립국어원이나 하나재단, 지역 유관기관 등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언어 적응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언어 적응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경제적인 활동으로 인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북한이탈주민 간의 소통이 주요한 정보 전달의 통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 몰라요. 구청이나 국정원에서 문자로 오는데 그런 문자를 봐도 교육에 참가할 시간이 안 돼요. 특히 저희도 탈북민들 아니면 공유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단톡방이 따로 단체장들만 하는 방이 있고 일부러 내가 찾지 않으면 몰라요. 일반적으로는 정부에서 탈북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정책을 아는 사람은 몇 없어요.

실제 참석하는 사람이 없죠. 먹고 살기 힘든데. 그리고 그 전에 보면은 하나재단이나 그런 데서 공지를 띄워요 한 번씩. 근데 솔직히 홈페이지 들어가서 봐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야, 이번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시간 되면 참석할래?’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거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몰라요.

H3.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언어 적응 교육이 지역 교회나 시민단체와 연계할 때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북한이탈주민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매주 방문 수업 형태의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장이나 사회에서 의사소통 시 큰 장애를 일으키며 이로 인해 대화를 기피하는 심리적인 문제까지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이

들이 교회에 모이는 가장 큰 이유는 고향말로 대화할 수 있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다른 건 모르겠고 회사에서 일을 할 때 한국 사람들하고 일하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일하면서 3년 4년 이렇게 다녀 봐도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해도 그게 뭔 소리인가 들어도 웃지도 않고 일없지만 여기 사람들하고 모이게 되면은 한번쯤 웃어대고 우스갯소리도 해보고 하는데 거기 사람들하고는 웃는 일이 없고. 웃어도 난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구태여 웃을 생각도 없고 거기에 무슨 내용인가 알고 싶지도 않고 …

전에 진짜 하나재단에서나 모집한다고는 했는데 사람들이 시간이 없고 하니까 다들 안 가요. 두음법칙에 대해서 사실 지금처럼 교육시키고 하는 데는 솔직히 없었어요. 근데 진짜 강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다들 자율적으로 참석해서 모두 좋다고 다 하더라고요.

H4. 성경을 활용하여 남북한의 맞춤법 원리를 중심으로 교육할 때 북한 이탈주민의 문법 이해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1) 남북한어 성경을 대조해서 학습할 때 두음법칙 규정이 쉽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또한 성경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할 때 즐겁게 공부하셨습니까?

성경을 통해 북한어와 남한어를 대조하여 학습할 때 학습자 스스로 차이를 발견하고 학습활동을 통해 세부항목에 대한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고 나니까 … 알고 보면 간단한데 모르고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한에서는 낱말을 말하는 대로 쓰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북한은 한자 그대로 쓰는데 남한은 말하는 대로 쓰는 거 같아요.

우리 북한말로 성경을 읽으니까 머리에 좀 들어가요. 그리고 남한 말에는 아무튼 어려워요. 그래도 모르던 것도 배우고 알아 나니까 머리에 좀 들어갔어요. 좋았어요.

2) 다음에도 교회에서 어문규범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배우고 싶은 어문규범의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

니까?

교회에서 성경을 이야기를 활용하여 한국어 교육이 학습자들에게 흥미와 관심뿐만 아니라 언어 적용 교육으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배우고 싶은 영역으로는 외래어나 사이시옷 등 남북한어의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들에 대해 응답하였다.

예, 배우고 싶습니다. 좋죠. 앞으로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강사님, 또 오셔서 배워 주십시오.

북한에서는 스트레스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우리 오늘 기분 없다 이 말을 자주 써요. 아무래도 외래어가 어려워요. 우리는 ‘고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시옷을 다 넣더라고요. 우리는 ‘해님’, ‘해빛’이라고 해요.

5. 결론

지금까지 남북한어 성경을 활용하여 남북한 맞춤법의 원리를 중심으로 한글 맞춤법 교육 방안을 구안하고 이를 적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어휘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의 맞춤법 세부항목을 프레이터(Prator)의 문법의 난이도를 적용한 결과, 북한어에서는 하나이던 규칙이 남한어에서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으로 분리되는 가장 어려운 항목은 두음법칙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초조사 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은 한글 맞춤법 규정에 제시된 예시어보다 성경에서 출현하는 어휘를 더 쉽게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더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북한어 성경에서 두음법칙 관련 어휘를 추출하고 전문가 협의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게 친숙하고 쉬운 교육 용 어휘 목록을 선정하였다.

셋째, 한글 맞춤법의 두 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위계적 구성의 두음법칙 교육 방안을 구안하였다. ‘소리대로’의 원리인 1단계(제10항 불임1, 제11항 불임1, 제12항 불임1), ‘어법에 맞도록’의 원리인 2단계(제10항, 제11항, 제12항)와 3단계(제10항 불임2, 제11항 불임1 다만, 제11항 불임4, 제12항 불임2)의 위계를 설정하였다.

넷째, 북한이탈주민 출신 교회에서 2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으로 나누어 총 9회기 수업을 하였다. 실험집단은 남북한어 성

경을 활용한 교육 내용을 적용하였으며, 대조집단은 두음법칙 원리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는 문법의 이해도, 표기, 발음 양상에 대한 사전-사후점수의 t-test 검증과 초점집단면담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성경을 활용하여 남북한 맞춤법의 원리를 중심으로 교육할 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남북한 맞춤법의 원리를 바탕으로 교육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두음법칙 세부항목에 대한 이해도, 표기, 발음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심층면담 분석 결과, 두음법칙 교육이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로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문제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의사소통 시 장애를 일으키며 이로 인해 대화 자체를 기피하는 심리적인 문제까지 야기한다. 특히 남한에서 이름의 성씨가 바뀐 현상에 대해서 정치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다. 두음법칙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학습자들이 두음법칙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오해가 해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남북한어 성경을 대조하여 교육한 실험집단의 경우, 원리 중심 교육을 한 대조집단보다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고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 출판한 『공동개정』과 이를 북한의 문화어 맞춤법에 맞게 교정하여 평양에서 출간한 성경을 다시 출간한 『조선어 현대기 성경』(2008)의 남북한어 대조 텍스트를 활용하였다. 성경 텍스트에서 남북한 어휘 대응을 통한 이형동의어 및 동형동의어의 어휘를 찾고, 두음법칙 세부규정의 원리를 바탕으로 교육할 때 학습자들이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흥미와 관심을 나타내었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남한어 성경과 북한어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는 성경을 활용하여 교육할 때 그 효과가 더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같은 고향말을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교회나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한국어교육이 지속적으로 시행된다면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과 함께 신앙교육의 효과도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언어 적응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태이며, 정보 공유의 부재와 경제적인 이유로 실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어를 배우고자 노력하지만 현실적인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교회와 연계하여 언어적응 교육을 실행한다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언어 적응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향으로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교회와 연계하여 성경을 활용한 한글 맞춤법

교육의 효과성에 관하여 실증적인 논의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20명을 대상으로 두음법칙 항목의 효과성을 검증했다는 점은 본고의 한계이며, 향후 성경을 활용한 실제적인 언어적응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

<주제어>(Keywords)

북한이탈주민, 남북한어 성경, 한글 맞춤법 원리, 두음법칙 위계화, 한국어 교육.

North Korean defectors, South and North Korean Bible, Principles of Korean orthography, Initial Law hierarchy, Korean Language Education.

(투고 일자: 2024년 8월 23일, 심사 일자: 2025년 2월 20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4월 16일)

<참고문헌>(References)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9.
- 『조선어 현대기 성경』, 서울: 서울유에스에이, 2008.
- 구본관, “맞춤법 교육 내용 연구: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27 (2008), 195-232.
- 구본관, 신명선, “문법 지식의 충위와 성격-원리 중심 문법 교육의 설계를 위한 토대”, 「국어교육연구」 76 (2021), 97-136.
- 구본관, 신명선, “원리 중심의 문법 교육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27 (2011), 261-297.
- 구현정 외, 『국어문화학교 특별 과정 개발—새터민을 위한 국어 교육 과정—』, 서울: 국립국어원, 2008.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동아, 1999.
- 김혜윤, 한정범, 조연주, “북한이탈주민 언어적응 교육과정 기초 설계를 위한 델파이 조사 연구”, 「새국어교육」 118 (2019), 165-191.
- 김홍기, “지식경영에 있어서 지식의 표현과 메타지식의 역할”, 「산업공학」 13 (2000), 10-16.
- 대한민국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글 맞춤법』, 2017.
- 모홍월, “중국인 학습자를 통해서 본 문화교육의 위계화 방안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 (2020), 133-156.
- 박덕유, “국어 어문 규정의 두음 법칙 위계화 연구”, 「새국어교육」 88 (2011), 353-376.
- 박덕유, 이안용,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성경 한자어 교육 연구 –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45 (2019), 162-200.
- 박이석, “북한이탈주민 남한사회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정책과학연구」 25 (2015), 1-21.
- 박종선 외, 『2016년 남북 언어의식조사 보고서』, 서울: 국립국어원, 2016.
- 배준영, “대구지역 새터민의 언어적응 양상 연구: 음운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1.
- 신명선 외, 『새터민 어휘 학습 교재 집필 지침서』, 서울: 국립국어원, 2010.
- 우인혜, “북한이탈주민 교재 보완을 위한 남북한 언어 비교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9 (2018), 111-141.
- 이안용,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 연구 동향 분석”, 「외국어교육」 27 (2020), 211-236.
- 이호영, 『새터민이 배우는 표준 발음 교실』, 서울: 국립국어원, 2009.
- 임순희, 성민주, 이승엽, 『2023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 실태』, 서울: 북한

- 인권정보센터, 2023.
- 임현열, “<조선말 규범집>과 <한글 맞춤법>의 규정 대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식 철자법’ 교육을 위하여”, 「다문화콘텐츠연구」 36 (2021), 353-37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어사정위원회, 『조선말 규범집』, 2010.
- 조선어문연구회, 『조선어 신철자법』, 1948.
- 조선어학회, 『한글 마춤법 통일안』, 1933.
- 조연주,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착 목적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 연구: 지역적응 센터 초기집중교육 연계 방안”, 「현대북한연구」 21 (2018), 84-125.
- 조위수 외, “북한이탈주민 대상 언어적응 콘텐츠 개발 사례 연구”,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4 (2019), 179-205.
- Banathy, B. H., Trager, B. C., and Waddle, C. D., “The Use of Contrastive Data in Foreign Language Course Development”, A. Valdman, ed., *Trends in Language Teaching*,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66.
- Deng, S.,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수량 표현 교육 위계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21.
- Ghoris, T. L.,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An Introduction”,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6 (2007), 203-205.
- Jin, X., “한국어 교육용 음운규칙 내용 선정 및 위계화 연구: 중국 대학 한국어 전공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9.
- Lado, R., *Linguistics across Cultur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7.
- Lederman, S. A., and Paxton, A., “Maternal Reporting of Prepregnancy Weight and Birth Outcome: Consistency and Completeness Compared with the Clinical Record”, *Maternal and Child Health Journal* 2:2 (1998), 123-126.
- Prator, C., *Hierarchy of Difficulty*, Unpublished classroom lec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967.

<Abstract>

Effectiveness of Korean Orthography Educ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Using the Bible: Focusing on the Initial Law

An-Yong Lee
(Inh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designing and applying an educational plan for the Initial Law using the North and South Korean Bibles to enhance the vocabulary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research method involved the following steps. First, an educational vocabulary list was selected by extracting vocabulary related to the Initial Law from the North Korean Bible and conducting a basic survey. Second, an educational plan for the Initial Law was devised,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Korean orthography using the Bible. Third, a total of nine classes were conducted by dividing 20 North Korean participants from local churches into an experimental and a comparison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was educated using the North-South Korean Bible, and the comparison group was educated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Korean orthography in South and North Korea. Fourth, the effectiveness of the education was verifi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with the experimental group.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e following. First, this experiment confirmed that it is effective in enhancing the vocabulary of North Korean defectors concerning detailed items of the Initial Law. Second, in the case of the experimental group using the Bible, the average score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comparison group. It was confirmed that education centered on the principle of Korean orthography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as effective, and it was verified that the score was higher when using the South Korean-North Korean contrast Bible. Third, as a result of in-depth interviews, when using the North Korean Bible, learners showed interest and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education. In addition, Korean orthography education can address some of the problems caused by the language differenc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For example, in South Korea, there was a confusion of identity

about the phenomenon that the last name changed from ‘리’ to ‘이’, but the misunderstanding was resolved after education. Although language adaptation education is being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as a policy, it is still insufficient, and practical participation has not been made due to the lack of information sharing and economic reasons. In addition, although North Korean defectors try to learn the South Korean language, practical opportunities are insufficient. In order to improve this problem, it could be an effective alternative if language adaptation education is implemented in connection with a church from which North Korean defectors originated. Future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norms education programs can be expected.